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4월 18일 (금)

---(음력 3월 21일)---

Пятница

18 апреля 2025 г.

№ 15 (1213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0일은 러시아 정교회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부활절 제과 생산 확대

오는 4월 20일 러시아 정교회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을 기념한다. 사할린주 농업상업부에 따르면, 지역 내 제과 및 베이커리 업체들이 이 중요한 명절을 대비해 미리 준비에 나섰다.

현재 섬 지역에는 120개 이상의 빵과 과자 생산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들은 모든 지자체에 분포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부활절을 맞아 올해는 아몬드, 코티지 치즈, 오렌지, 초콜릿 글레이즈 등 다양한 맛의 부활절 빵(쿨리츠)이 출시될 예정이며, 케이크팜, 머핀, 크래핀 등 다양한 디저트도 함께 판매된다.

전국 취업 박람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2025년 4월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의 일자리. 기회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전국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이 박람회에는 구직자,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 기회 제공, 취업 멘토링 및 워크숍, 고용센터의 최신 서비스 안내, 기업 및 교육기관 대표와의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사할린 주민속창작센터(포베다 거리 24)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또한, 이번 박람회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직업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열려 사할린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활발한 교육'교육센터(레닌 거리 234베)에서 펼쳐진다.

사할린 계, 비소 검출로 판매 중지

사할린 서부 해역에서 잡힌 생게 46.9톤에서 최대 허용 수준을 2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러시아 농업감시청(로스셀호즈나드조르) 프리모리에 지역간 관리국이 밝혔다. 어획은 연해주 회사가 했다.

러시아 농업감시청은 '웨스타' 전국자동화시스템에 이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인선, 솜슈 섬에서 수중 탐사 진행

1945년 쿠릴 상륙 작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을 기리는 솜슈 섬에서 군사역사 기념단지 건립을 위해 무인 보트가 수중 탐사를 진행했다. 감시를 위해 무인선에 드론도 동행했다.

'사할린의 날개(크릴야 사할리나)' 사할린과학생산센터 전문가들은 무인 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기념단지 건설을 위한 유형 화물 수송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솜슈 군사역사기념단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설되며, 2025년 8월 18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7월부터는 탐사대가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정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밝은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기념일은 선에 대한 믿음, 최고에 대한 희망,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영혼에 가벼운 감정을 불리일 으키며 사심 없이 따뜻함을 베풀고 용서하며, 생각과 행동의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과 행복, 서로의 이해, 정신의 힘과 건강을 기원하는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할린주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부총리와 지역 발전 논의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가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체르니셴코와 만나 사할린 지역의 과학, 교육, 관광 분야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사할린주가 '교육'과 '인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긍정

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사할린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 덕분에 교육 기관에 5, 6천개 이상의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졌고, 유치원의 접근성이 100% 보장되었습니다.

(3면에 계속)

2024년 사할린 사회복지 정책, 가족·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사할린주 사회보호부 이사회 회의에서 2024년 주요 업무 분야로 다자녀 가정·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장애인·노년층 지원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 2025년 계획을 논의했으며, 특히 주지사가 발의한 "행복한 모성" 프로그램 시행을 비롯해 지난해 주목한 분야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다자녀 가정 주택 공과금 할인, 3자녀 출산 시 모기지 지원금, 장애인 이동 서비스(인바택시) 확대 문제를 실행한다.

주사회보호부 장관 올가 오를로와는 "모든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사할린 주두마, 불곰 서식지 인근 안전 대책 논의

최근 사할린 주에서 불곰의 출현과 공격 사례가 증가되어 주두마 생태·자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현재, 지역 내 곰의 수는 3,881마리까지 증가(2023년 3,737마리)했으며, 불곰은 사람 사는 곳, 특히 쿠릴스크·노글리키·스미르니흐 구역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어업 폐기물 노출, 관광객의 부주의한 행동 등이다.

회의에서 사할린 산림·사냥청은 공격적인 곰의 포획 허가 발급, 사냥 기간 연장, 주민 교육 등의 조치를 설명했다. 위원회 의원들은 생태·자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 관광부, 산림·사냥청에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자바이칼변경 의회 권영화 의장: "사람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교수, 사업가, 사회활동가, 정치인으로서 활약

3월의 마지막 날, 신문사에 40대 러시아 여인이 들어왔다. 건물의 신문사 간판을 보고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빅토로브나 베소노와는 자바이칼변경 정부 부총재였다. 신문사에 들어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바이칼변경 의회 의장인 권영화 씨가 이곳 사할린주 마카로브시 출신이라며, 존경하는 그분에게 고향인 이곳 한민족지를 갖다드리고 싶다고 했다.

기자로서 권영화 의장에 대한 취재 욕심이 생겼는데, 다행히 연락이 되었다. 1949년 생인 권영화 씨는 사할린에서 보내온 연락을 반갑게 받았다. 그분을 다들 러시아 이름으로 유리 미하일로위츠라고 부른다.

강제 동원된 한인 부친과 일본인 어머니 사이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다. 조선학교 8년제를 졸업한 후 러시아 일반학교에서 공부했다.

공부가 재미있었고 또 누군가 '경시대회에 참가해 수상하면 러시아 국적 취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온 가족이 무국적자여서 대륙에서 공부하려면 경시대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물리학, 수학, 화학 등 여러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수상경력이 많았다.

이 경력은 실로 국적 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16세가 되자 그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이 덕분에 나머지 가족(어머니, 아버지, 남동생과 두 여동생)도 쉽게 국적 허가가 났다.

그는 학교 졸업 때 은메달(러시아어 필기 시험 - 작문 쓰기에서 5/4

받았음)을 받아 다양한 최상급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레닌그라드대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이르쿠츠크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는 흥미롭고 우연한 일들이 많았다. 그가 이르쿠츠크 공과대학에서 물리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어 찾아갔을 때 점심시간이어서 접수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한 남성이 그의 서류를 보고 '너는 건축 엔지니어가 돼야 한다'며 접수를 시켰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건축학부 학장이었다. 권영화 학생은 1년만 이 과에서 공부하고 다른 학과로 가려고 했지만 그동안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도 정이 들고 과내 학생 활동이 재미있어 졸업까지 했다. 실력이 좋아 대학을 졸업한 후 자동차공장 건설장에 파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학 학장이 또 다시 그의 운명을 정했다.

치타에 금방 생긴 공과대학(당시 이르쿠츠크대학교의 분교, 현재 자바이칼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권영화씨는 한평생 대학생들에게 재료강도와 건축사업을 가르쳤고 40년동안 건축학부 학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도 그는 지금도 토요일마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일하면서 그는 비즈니스도 해보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 지역 의회 의원으로서 이미 2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국상품을 치타 지역에 처음 가져온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 전자제품 등이었거든요. 사실 비즈니스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1990년대에 치타 사업가들이 협회를 만들고 이들의 관심사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 의회에 출마한 것이다.

치타 주 의회 제3, 4기, 자바이칼리에 변경 의회 제 1, 2, 3기 의원을 지내며 국가 정책, 사회 정책, 경제 및 투자 정책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부의장도 맡았다. 2021년에 의회사정으로 의장을 맡게 되었고 2023년에 의원으로 재선되었을 때에도 그는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었다. 한평생 의원으로서 그의 역할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 처리부터 국가 프로젝트 감독, 법률 개정까지 다양했다.

의회에서 때로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렵고 복잡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권영화 의원은 신중한 판단과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도로 최근 몇 년간 고아들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급식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대조국전쟁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했고, 팬데믹 기간 중 사업가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또한 의원들의 업무에 개방성의 개념을 도입했다.

"토론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의견을 모르는 의원은 좋은 의원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해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때



월 네 차례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항상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그의 원칙이다.

유리 미하일로위츠라 불리는 권영화 의장은 정말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자도 수천명에 이른다. 이들 덕분에 원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과 만남을 즐겨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이다.

권영화 의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80년 말, 그의 친형이 한국에서 그를 찾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조차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아버지는 50세 즈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아가 권영화 씨는 누나와 형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듣고 보니 형제의 인생은 많이 비슷했다. 형도 사업을 해보았고 세명대학교를 세웠고, 교수도 역임했고, 국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지금은 돌아가신 형이지만, 생전에 권영화 씨는 형과 돈독한 사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간 것은 2019년, 코로나 19판데믹 제재 이후로는 한국에 가보지 못했다.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는 치타지역 고려인 단체도 이끌고

있다. 이곳에 약 250여명의 한민족 핏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여러 행사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치타는 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어서 그곳 총영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요일마다 그는 두 아들과, 그의 가족들과 만나고 있다. 홀아비가 된 지 16년째인 그에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다.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준비해온 요리도 맛본다. 손자 셋인데, 모두 사랑을 주고 있다. 그가 즐겨 하는 요리는 녹두 나물, 김치볶음, 불고기 등이다. 아이들도 한식을 좋아해, 종종 사할린에서 가져온 고사리 요리도 해준다. 부랴트 만두인 부즈도 즐겨 해먹는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빠른 속도 걷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코비드를 거의 죽을 정도로 엄청 심하게 앓은 그에게 이것만이 살길이었다. 하루에 11킬로미터는 반드시 걷는다. 이것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최근 권영화 씨는 고향을 자주 찾았다. 이곳에 두 여동생이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은 가려고 한다. 동생들도 만나고 마카로브도 가고 사할린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와도 만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인 사할린 낚시를 놓칠 수 없다. 8월 15일에는 부모님 산소에 찾아간다. 대학 학장직에 있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지역 의회에서는 여름이 휴가철이라 이 또한 가능해졌다. 올 8월에도 사할린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직 전진만이 제 길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제 주요 원칙입니다."라고 말하는 권영화 의장을 그때 직접 만나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코르사코브, 학생들을 위한 진로 행사 열려

이 행사는 '푸쉬킨 카드'기획의 일환으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제1호 학교의 8학년 학생들은 책과 독자와 일하는 데 필요한 자질에 대해 배웠다.

시어린이도서관의 야나 프레제이나 관장은 어렸을 때 미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운명이 자신을 도서관으로 이끌었고 후회한 적이 없으며 직업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활발한 토론 후에 참가자들은 도서 대여실에서 사서 역할을 해보았다. 이들은 도서관 관리 방법을 배우고 섹션, 코드, 저자 이름 별로 책을 찾아내고 '독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마스터 클래스가 끝나고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부스를 장식했다.

회의는 비밀의 방으로의 특이한 여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서는 책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하며 정돈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새로운 인상, 지식, 흥미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찾으려 하는 방문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다.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ая встреч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шла в Корсаков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ушкинская карт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Ученики 8 класса из школы №1 узнали о качествах,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аботы с книгами и читателями.

Заведующая городск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Яна Предеина поделилась с ребятами личной историей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рассказав, что в детстве мечтала со-

всем о другом — стать парикмахером, но судьба привела ее в библиотечное дело, о чем она ни разу не пожалела.

После оживленной дискуссии участники реши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библиотекарей в зале абонемента. Они изучили некоторые библиотечные хитрости, искали книги по разделам, кодам, фамилиям авторов и даже пообщались с «читателями».

В конце мастер-класса ребята украсили выставочный стенд,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роявив свою креативность.

Встреча закончилась необычной экскурсией в секретную комнату. Библиотекарь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книги нужно хранить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порядок очень важен, и на его поддержание уходи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Однако все эти усилия приносят радость посетителям,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за новы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знаниями и интересным отдыхом.

우주비행의 날 맞아 사할린 상공에 드론으로 축하 카드 그려

4월 12일 우주비행의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의 하늘은 이색적인 인사로 꽃을 피웠다. '오로라 무인 항공 시스템'항공사와 기술 스포츠 센터가 협력하여 사할린 주 정부 왜채슬라브 알렌코브 부총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웅장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현대식 드론을 사용해 사할린의 하늘에 대형 축하 카드가 그려졌다. 드론은 전설적인 위스토크-1 우주선의 윤곽에 유리 가가린의 유명한 "가자!"란 단어를 선명하게 그려냈다. 글로나스 정밀 추적기가 기록한 이 천상의 메시지는 우주 업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축하하고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독창적인 방법이었다.

Поздравительную открытку в честь Дня космонавтики нарисовали дронами над Сахалином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Дня космонавтики, 12 апреля

сахалинское небо расцвело необычным поздравлением.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 БАС»,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Центром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плотила в жизнь креативную идею зампре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а Аленкова, устроив грандиозный флешмоб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ого беспилотника в небе над островом возникла масштабная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открытка. Дрон «нарисовал» четкие контуры легендарн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корабля «Восток-1», вокруг которого засияла знаменитая фраза Юрия Гагарина: «Поехали!».

Небесное послание,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е точными трекерами АО «Глонасс», стало оригинальным способом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причастных к космическим достижениям и напомнить о значимости этого дня для страны.

사할린, 곰들이 깨어나고 있다

사할린 남부에서는 불곰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사할린의 한 주민이 오픈키 마을과 네벨스키시 구간 도로에서 곰 세 마리를 포착했다. 곰들은 호기심에 주변을 살피다가 곧 숲 속 깊이 사라졌다.

이 장면을 촬영한 주민은 "놀랍다! 숲의 주인들이 깨어나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네"라며 감탄을 전했다.

포식자와의 갈등 방지를 위한 핵심 원칙은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통합 근무 파견 서비스(UDDS) 번호112로 또는 지방 산림국에 전화하면 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сыпаются медвед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начали выходить из спячки бурые медведи.

Так, на прошедших выходных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запечатлел троих медведей у трассы между Огоньками и Невельском.

(8면에 계속)

'하늘'양상블, 사할린 '대학생의 봄' 축제에서 빛나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사할린 지역의 창조적인 수도로 변모했다. 이곳에서 "2025 러시아 학생의 봄" 지역 예선이 열렸는데, 사할린 주내의 800명 이상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참가했고, 쿠릴 열도에서 온 대표단도 있었다.

올해는 비디오·미디어·아트·악기 연주·댄스·보컬·패션·전자 음악 & 디제이(DJ)·연극·오리지널 장르를 포함해 사할린 지역 예선에서 10개의 주요 창의적인 분야가 준비되었다. 수많은 참가자 중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한민족전통타악기양상블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여러 부문에서 높은 상을 휩쓸었다.

"하늘"은 "독립 창작 단체 하늘"(사할린 주한인협회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축제의 다양한 부문에 참가했다. 끝없는 연습과 세세한 연마, 완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룬 값진 결과는:

- 악기 연주(대규모 양상블): 1위 (박 알레리아, 김 카타리나, 김 알비나, 이 율리아,

스타르체와 에웰리나, 쿠스토와 타이시아, 쉬웨초브 로만)

- 악기 연주(소규모 양상블): 3위 (송천석, 송미선, 박금선)
- 기타 솔로: 1위 (쉬웨초브 로만)
- 오리지널 장르: 그랑프리 + '리듬의 세계에 대한 감정적 몰입'으로 인기상 (송천석, 송미선, 박금선)

'하늘'그룹의 송천석 단장에 따르면 '하늘'은 러시아 전국 결승전에서도 사할린 지역을 대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난 10일(목) '하늘'은 제13회 러시아 창조 경연대회 "예술. 청년. 재능"에서도 양상블 연주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또 한번 빛을 발했다. "하늘"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다. 에너지, 전통, 그리고 현대성이 하나의 리듬으로 녹아있는 예술이다. 앞으로도 더 큰 무대에서 '하늘'의 열정과 재능을 기대해본다.

(배순신 기자)
(사진: '하늘'양상블 제공)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부총리와 지역 발전 논의



(1면의 계속)

'젠크코이 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대적인 교육 공간이 조성된 가운데 교육 센터인 "그로스 포인트(성장의 점)"와 학교 기술 공원인 "퀀토리움"이 문을 열고, 학교에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부총리가 밝혔다. 이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청소년과 어린이"의 틀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회의에서 부총리와 주지사는 사할린테크 프로젝트 구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캠퍼스의 총면적은 약 1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적 수준의 독특한 교육 캠퍼스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고 섬의 주요 대학교인 사할린국립대를 개혁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 전체 개발을 위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할린주는 물류,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섬 주민과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업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캠퍼스가 이러한 측면을 포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며, 섬 지역의 교육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이

미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서, 실험실, 연구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르니센코 부총리와 리마렌코 주지사는 국가 프로젝트인 "관광 및 호텔업"의 구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극동지역의 스키 리조트들의 개발과 산 트랙 길이의 증가, 그리고 사할린 지역의 "돌리나 아이나"리조트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인프라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 시행 덕분에 사할린주는 극동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의 67%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작년 말, 3년간 사할린주 스포츠 발전 프로그램이 시행된 가운데 선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선수 의료-생물학 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정부 자료에서)

동포청, '최재형 장학금'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들 격려

아시아발전재단(ADF), 고교생 및 대학생 등 20명에 1년간 장학금 지원 이기성 정책국장 수여식서 "동포청이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언급

재외동포청(청장 이장덕)이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을 기리는 장학금을 받은 국내 체류 고려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준일) 주최 '2025 ADF-최재형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축하한 뒤 수여자들을 응원했다.

ADF는 최재형 선생의 폐치카 정신*을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연간 200만원과 10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폐치카 정신 : 폐치카는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으로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배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뜻함

올해는 대학생 12명, 고교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2024년 : 국내 총 17명(대학생 11명, 고등학생 6명), 해외 총 2명(고등학생 2명) 대상 장학금 지급

조남철 ADF 상임이사는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은 고려인과 한국사회의 미래만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 장학금이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기성 국장은 장학생에 선발된 고려인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스토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보다 더 빠르게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포청이 아시아발전재단 등과 함께 그 길을 응원하고 동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F 김영철 자문위원, (사)최재형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고려인 학생들을 응원했다.

장학생 대표로 박올가(23, 우즈베키스탄)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넘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려인 동포사회를 위해 통·번역 활동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만큼 앞으로도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여자들은 앞으로 직접 참여하고 싶은 장학생 활동 아이디어를 ADF에 제안하고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21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4일 현재 12만8309명

조기 대선 상황 비슷한 19대 대선 당시 30만명보다 절반도 안돼 선관위 "재외선거 참여 열기 높아 예년 수준 이상 등록할 것" 기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가 이전 대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 현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는 모두 12만830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실시한 19대 대선은 최종 30만34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1247명이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를 등록했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 등록은 4월 24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 재외선거인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재외동포들의 선거참여 열기가 높은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이 재외선거에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면 서 짧은 기간에 온라인에 집중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권이 있는 해외 체류 국민은 기한 내에 신고·신청해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지난 4월 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등을 통해 재외선거를 접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재외선거를 위해 해외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총 182개 공관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했다.

재외 투표는 오는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 75-летию Игоря Павловича Фархутдинова (1950–2003)

Народный губернатор



Однажды осенью, среди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Игорь Павлович решил пройтись пешком от здания обла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 ж/д вокзала. Рабочий график у губернатора обычно начинался с семи утра. Четко расписанные встречи и собственный характер трудолюбивика не давали ему 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нять голову и хотя бы просто устроить перекур или тихий час. Он, отличный лыжник, не курил и терпеть не мог валяния на диване. После рабочих совещаний губернатор садился в машину и стремительно передвигался от котельной до стройки, от больницы до школы — туда, где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решать насущные задачи... Поэтому его команда очень удивилась предложению шефа отменить авто и до объекта прогуляться пешком. Свита была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начальник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дин помощник с документами, один специалист пресс-службы, один телохранитель. Дело было в 90-х, и по регламенту губернатору полагалась охрана. Но, по моим наблюдениям, Фархутдинов относился к молодым бойцам как к сыновьям и, скорее, сам бы бросился их защищать, чем подставил бы под пули, случись тако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и несколько журналистов из различных СМИ. Ведь событие долгожданное для всех островитян! К нам поступили первые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новые пассажирские вагоны! День был особенный. И даже осенние, тяжело набухшие тучи разогнало вмиг. Небо посвет-

лело, показав изумительную глубину яркой синевы. И уже холодеющие солнечные лучи, тем не менее, светили мощным потоком, заставляя прищуриваться. Игорь Павлович вышел из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епривычно неспешный, с улыбкой беседующий с началь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н тоже весь светился от радости, и даже позолоченные пуговицы на фирменном сюртуке, казалось, сверкали ярче солнца. Они оживленно беседовали всю дорогу (было: дорогу — печатка). Так мы и шли по любимом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роспекту в приподнятом настроении, в предвкушении праздника. По пути произошла забавная сцена. Путь к вокзалу проходил мимо цветочных павильонов. И внутри одного из них я замечаю остолбеневшую женщину, стоящую с огромным букетом хризантем. Она как раз переставляла цветы в вазонах, когда увидела в дверном проеме близко-близко проходящего губернатора. Не поверив собственным глазам, цветочница спросила напарницу: — Это что, л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шел? Он что, пешком ходит? — Не может быть! — был ответ.

Наконец, мы дошли до вокзала, обошли здание и увидели на путях новые вагоны! Внутри стояли синие в крапинку кресла с высокими спинками, как в самолете Ил-62 (было: ИЛ-62 — правильное написание). Кресла разворачивались, и можно сидеть всегда лицом по ходу движения либо компанией, повернувш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Это сейчас вполне привычные вагоны. А тогда,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они были внове на нашем острове! Эти вагоны сослужили добрую службу во врем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обслуживания нефтегаз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звития Ноглик, других сел и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обустройства Дагинских горячих источников.

Вскоре мы в этих самых вагонах поехали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на север. Не успела я поставить чемоданчик в вагоне, как в окно увидела: по перрону мечется мамочка с двумя малышами, и за ними бабушка с баулами детских вещей. Она подошла к моему окну и что-то просит, объясняет: билеты есть, а мест нет, и поезд вот-вот тронется. Оглядываюсь — по коридору проходит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Романов, тоже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Он подходит к окну, но женщину плохо слышно, тогда быстро идет к выходу, прыгает на перрон, разбирается в ситуации и успевает до отхода поезда все уладить — семья едет домой! Вот такая деятельная команда была у губернатора по всем отраслям.

К примеру, Наталь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Нестерова,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Однажды я увидела, как она высочила из кабине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ся в красных пятнах: — Поступ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еньги в бюджет.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 странице

Сахалинка создала вирусный клип с помощью ИИ

«Сахалин. Чехов. Вечность» — этот видеоклип, созданный с помощью нейросетей,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разлетелся по соцсетям, собрав восторженные отзывы сахалинцев. Его автор — Алёна Ким (Ким Мен Хи), человек, душа которого «просит творчества».



Алёна родилась в Холмск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переех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 нее было много увлечений, с интересом занималась многими вещами, любимым чтивом были журналы «Техника — молодежи», «Наука и жизнь».

— Любимое место в детстве — гараж дяди. Там я научилась пилить, строгать, мастерить что-то руками. А у мамы училась вязать, шить, плести макраме. В школе участвовала во всех конкурсах, даже по рукоделию, и часто побеждала, — вспоминает она.

Мечтала стать врачом, но в 90-е пришлось идти другим путём: изучал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институте «Самюк», затем получил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 Я всегда искала себя, — признаётся Алёна. — Работала переводчиком, бухгалтером, пробовала себ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но душа просила творчества.

Не так давно подруга показала ей возможности нейросетей, за что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ей.

Идея клипа «Сахалин. Чехов. Вечность» родилась случай-

но. Сначала Алёна попробовала «оживить» бронзовую Незнакомку — скульптуру, мимо которой часто проходи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том пришла идея собрать всех чеховских героев в один ролик.

— Я описала нейросети задумку: хотела передать связь Чехова с Сахалином, характер героев, красоту острова. Когда дело дошло до музыки, сразу поняла: нужно писать свою песню. Это не просто «нажал кнопку — получил шедевр». Пришлось долго работать с вариантами, править, добиваться нуж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Многие думают, что ИИ делает всё сам, но это не так. Нужно точно знать, чего хочешь, и уметь это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С нейросетью Suno подобрала мелодию. — рассказывает Алёна.

На всё ушло четыре дня. Клип разлетелся по соцсетям, его репостнули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и драмтеатр. Незнакомые люди писал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 Я не ожидала такого отклика! Люди пишут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 это вдохновляет, — признаётся она.

Песня, написанная алгоритмом, получилась настолько душевной, что теперь Алёна планирует записать её в исполнении дочери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окалистки.

Сейчас Алёна живет в Москве. И скучает по Сахалину, особенно по рыбалке.

— Остров для меня — это Родина, место силы. И если моё творчество хоть немного передаёт эту любовь, значит, всё не зря. — признаётся Алёна.

И возможно, скоро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проекты, посвящённые острову. Алёна занимается созданием контента с помощью ИИ: делает поздравления, рекламные ролики, арт-проекты.

И ей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создания, и тот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она получает. Для Алёны Ким главное —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Работы Алёны Ким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 ВКонтате @kim.men.khi. Виктория Бя

"Ханьль" зажег на Сахалин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е"

С 7 по 10 апр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творческой столиц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десь проше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 2025".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более 800 талантливых ребят со всего региона, включая делегации с Южных Курил. В 2025 году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Росси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ы"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готовили 10 основных твор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 «Видео», «Медиа», «Арт»,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Танцевальное», «Вокальное», «Мода», «Электронная музыка и диджеинг», «Театральное»,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Среди них ярко выдел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Ханьль", которые не просто выступили, а завоевали высокие награды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Коллектив сформировал собственную делегацию — "Независимое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ьль" (при РООСК) — и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дготовка была колоссальной: бес-

конечные репетиции, оттачивание деталей и полная самоотдача. Но результат превзошел все ожидания:

-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большие составы) — 1 место (Пак Валерия, Ким Катарина, Ким Альбина, И Юлия, Старцева Эвелина, Кустова Таисия, Швецов Роман)

-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малые составы) — 3 место (Сон Чен Сог, Сон Ми Сун, Пак Гым Сун)

- Гитара соло — 1 место (Швецов Роман)

-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 Гран-при + спецприз "За эмоциональн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мир ритма" (Сон Чен Сог, Сон Ми Сун, Пак Гым Сун)

Теперь у "Ханьль" есть все шансы пред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тапе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ы". А это значит — новые вызовы, новые победы 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явить о себе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Но на этом успехи не закончились! Уже 10 апреля ансамбль блестяще выступил



на XIII Всероссийском творческом турнире "Искусство. Молодость. Талант", где взя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стати, если вы еще не видели выступления "Ханьль" — самое врем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х творчеством. Это не просто музыка, это энергия,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одном ритм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ставлено
Ансамблем "Ханьль"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оставил рекорд по числу пассажиров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 18 млн 60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что на 7,8%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сообщ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кварт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его историю. Показатель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19 года, то есть, до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превышен на 3,9%.

Самый высокий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отмечен на кита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 24,1%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алее следуют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16,1%),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10,8%) и Япония (10,4%). Если нынешняя тенденция роста спроса на авиaperевозки сохран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т в этом году рекордные 76 млн 64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ы КНДР, Китая и России 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в Москве

Поскольк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П Си Цзиньпи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иглашены в Москву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ржествах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Победы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эксперты не исклю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По сообщениям кита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я Ван И 1 апреля в Москве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и Цзиньпин посетит Россию. Ван И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его визита я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учас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П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приглашён на торжества в Москву.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15 апреля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над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совместные 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с участием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д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а B-1B.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цель учений, в которых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требители F-35A и F-16, а также американские F-16, демонстрац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юзников по реагированию на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чное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учений и количество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н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B-1B не уточняются.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союзники проводили подобные учения в феврале.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едстал перед уголовным судом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едстал перед уголовным судом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опытк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лушания начались 14 апрел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окружном суде Сеула через 10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странил его от обязанносте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Юн Сок Ёль – пятый по счёту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нет перед уголовным судом.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вошёл в здание суда через подземную парковку. Являясь ответчиком по уголовному делу, Юн Сок Ёль обязан лично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всех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я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в ходе первого заседания суд устанавливает личность подсудимого и знакомит его с обвинениями. Статья, по которой выдвинуты обвинения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пожизнен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или смертной казни. В качестве свидетелей обвинения в суд вызваны командир первой роты охраны Командования обороны столицы Чо Сон Хён и командир первого батальона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омандова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операций Ким Хён Ги.

Пианист Ким А Ин победил на конкурсе в Визе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Ким А Ин завоев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на VI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тепианном конкурсе в португальском Визеу. Он получил денежный приз в размере 9 500 евро и приглашение выступить на Весеннем музык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в Визе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щё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Ю Тхэ Ун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2014 года, чередуя по годам фортепианные и гитарные секции. Ким А Ин окончил музыкальную школу Евон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учается в Парижской Высшей школе музык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É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премии конкурса «Ханым» в РК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во французском Шато. Ю Тхэ Ун окончил школу Евон, Сеульск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школу и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скусств. Он завершил магистратуру в Вюрцбургской высшей школе музыки (Германия)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ает обучение на курсе для концертующ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ов

С 26 апреля по 4 мая в пяти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ах Сеула - Кёнбоккун, Чхандоккун, Токсугун, Чхангёнгун и Кёнхигун, а также в королевской усыпальнице Чонмё пройдёт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ов.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 -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охран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в одиннадцатый раз и счит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опуляризирующим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на фоне истор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сессии фестиваля посети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96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этом году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программы, связанные с нематери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такие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ремёсла и культура повседневного нош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ы ханбок. Запланированы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уроченные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5 мая.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Ким-Станкевич: жизнь, отданная за свободу

Корейки принимал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яр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навсегда вписавшей своё имя не только в историю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но и в историю всемирной борьбы против империализма и за права трудящихся, является 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Ким-Станкевич.

Короткий, но ярки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революционерки и патриотки лежал через горнила трёх русских революций, а начался он в корейском селе Синельниково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Её отец,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Ким Дусо), переселился туда из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Он владел корейским, китайским и русским языками, поэтому пользовался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как со стороны односельчан, так и рус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Когда Ким-Станкевич было всего десять лет, её отец получил работу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ВЖД и отправился вместе с дочками Александрой и Марией в Маньчжурию. Александра, начавшая учиться ещё в Приморье, продолжила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рабочей молодёжи в китайском Ашэхэ, попутно изучая китайский язык. Там, в Маньчжурии, начался её путь защитницы прав прост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 который она встала, следуя примеру отца, старавшегося, где возможно,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роителей КВЖД.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в 1902 году Александра осталась на попечении его товарища — этнического поляка Иосифа Станкевича, который посоветовал ей отправить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обучение в женск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гимназии. Там ж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на вышла замуж за его сына — Марка Станкевича, однако брак этот оказался неудачным, в том числе потому, что муж не разделял идейных убеждений Александры.

Биографы Ким-Станкевич считают, что на революционный путь она вступила уже в годы Первой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05-1907 годов. В это время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такж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демонстрациях, митингах, стачках и забастовках, и Александра, выступавшая за солидарность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общего врага — царизм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их поддерживала.

Было у неё немало знакомых и среди сторонников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которые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антияпонскую борьбу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в 1905 году Японо-корейского договора о протекторате. Объединённые общей идеей о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они нередко выручали друг друга.

Рождение сыновей Вячеслава (1908) и Бориса (1910)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твлекли её от 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нако в 1914 (или 1915) году она решает уйти от мужа и, оставив детей на попеч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Урал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цы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в, где вступает в контакт с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Екатеринбург и по её заданию начинает вести революционн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рабочих.

В дни феврал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Ким-Станкевич вступила в ряды большевиков и вскоре стала одним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юза уральских рабочих»,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и китайцы, трудящиеся на Урале. Некоторые из этих рабочих были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Так переплелись воедино движения за права рабочих в России 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друг друга в борьбе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от тирании русского царизма и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А в начале июля 1917 года Александра по заданию Екатеринбург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СДРП(б)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 пути она останавливалась во всех



이·달·의·록·업·운·봉·가
김알렉산드라 김알렉산드라 (1895년 - 1918년)
Alexandra (Petrovna) Kim-Stankevich
한국계 러시아 혁명가, 러시아 국외유민 운동가로 활동, 이후러인 혁명 운동사상당 창립, 소련으로 귀환하여 1918년 혁명사상당 창립을 주도하며 1918년 4월 16일 23살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혁명을 끝까지 싸우고, 내 고향 조선의 자유를 얻기까지 싸우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Первая корейка-большевик,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области, основательница вместе с Ли Донхи и другими товарищами Союза корейских социалистов. В 1918 году в Хабаровске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в тюрьме распространяла листовки и листовки, так как не могла связа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продолжила револю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вступила в ряды большевиков, народным комиссаром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и участвует в создан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лка численностью в 1 200 бойцов, куда вошёл и отряд из ста корейских красногвардейцев. Часть этого отряда впоследствии участвовала в боях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изанами в с. Вяземское и на Красной речке.
Предметом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Ким-Станкевич в Хабаровске стал вопрос объединения разрозненных отрядов корейского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округ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в апреле 1918 года совместно с такими вид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патриотами как Ли Донхи, Ким Рип, Пак Э, О Сонмок и др., был создан «Союз корейских социалистов» (Ханин сахве тонмэн),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ка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корейцев (Ханин сахведан).

04 АПРЕЛЬ 2025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Календар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2025 год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связи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Добравшись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Ким-Станкевич вместе с видным дея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Ли Донхи,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торого из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тюрьмы она приняла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ступает к созданию корей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 в конце 1917 года он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в Хабаровск, где активно занималась организаторской,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й и правозащи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еизменно выступая за равноправ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абочим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Там она становится членом бюро и казначеем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омитета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шевиков, народным комиссаром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и участвует в создан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лка численностью в 1 200 бойцов, куда вошёл и отряд из ста корейских красногвардейцев. Часть этого отряда впоследствии участвовала в боях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изанами в с. Вяземское и на Красной речке.

Предметом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Ким-Станкевич в Хабаровске стал вопрос объединения разрозненных отрядов корейского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округ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в апреле 1918 года совместно с такими вид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патриотами как Ли Донхи, Ким Рип, Пак Э, О Сонмок и др., был создан «Союз корейских социалистов» (Ханин сахве тонмэн),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ка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корейцев (Ханин сахведан).

Однако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ые сил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интервенцией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чали одерживать верх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молодой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и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белогвардейцы атамана Калмыкова заняли Хабаровск, поймав и попытавшихся скрыться от них на пароходе «Барок Корф» руководителей большевик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оказалась и Ким-Станкевич.

16 сентября 1918 года 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после изнурительных допросов и пыток была расстреляна.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соратников она смело встретила свою смерть и в последних словах заявила, что уверена — её родина, Корея, обязательно станет свободной.

Так, в возрасте 33 лет, оборвалась жизнь героини-корейки, страстного борца за счастье и будущее всех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лен АКР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алендарь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дины»)

Гиперконференция «Мы из России»: 8 лет МДКМ

12 апреля в Московском дом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шла гиперконференция «Мы из России» (МИР), посвящённая 8-летию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МДКМ). В этом году тема форума — «Патриотизм в сердце: роль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и», ч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в Год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Конференция объединила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экспертов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абота велась на четырё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ессиях, где обсуждали: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бще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и роль моло-

дежи в укрепл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волонтерство и соци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и про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истории через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аты — от вебтунов до игровых персонажей, а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ы в сфере адаптации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Итогом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о принятие резолюции. Составилось также вручение почётных грамот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формировани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развит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Директор МДКМ Павел Пай отметил: «Мы создали платформу для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и лучшее — впереди!».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шла в тё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подарив участникам новые идеи и вдохновение.

Фотоотчёт и подробности — на сайте МДКМ.



홍명기는 195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콜로라도 농장과 베벌리힐스의 한 가정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졸업 후 그는 철강 외장 코팅재료를 개발하는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하며 본격적으로 화학 도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항공기 및 자동차 마감재를 개발하는 연구소와 철강 코팅 원료를 연구하는 기업에서 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타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 그는 결국 1986년 51살의 늦은 나이에 독립을 결심하고 '듀라코트'(Dura Coat)를 창업했다. 자본금 2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는 로스앤젤레스 인근 화학회사 모퉁이에 설치된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문을 열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료 개발에 주력했고, 건축 자재와 상용차 코팅, 전자제품 외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특수 페인트를 생산하며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 연매출 3억 달러를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그는 1992년 LA 폭동을 계기로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미주 한인들은 폭동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한 그는 한인 정치인이 없음을 목격하고 미주 한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했다.

한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는 사재 1천만 달러를 회사해 2001년 밝은 미래재단(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M&L Hong 재단'의 전신)을 설립했고, 차세대 한인 지도자 육성과 사회복지 사업, 한인 권익 향상 등에 매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2년 '홍명기의 날' 제정 결의안에 그가 재단 설립 자금 1천만 달러 외에도 한국, 미국 등에서 차세대 한인 육성, 장학 및 사회 복지 사업 등에 1천200만 달러의 기부 활동을 펼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 한인 차세대 교육 및 장학 사업

홍명기는 한인 차세대 교육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장학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쳤다. 2000년 미

주 유일의 민족교육 기관이자 정규 초등학교 기관인 남가주한국학원이 오랜 재정적 자누적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학원 이사장을 맡아 불철주야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20만 달러의 본인 기부금을 포함해 3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부채를 상환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했다.

홍명기는 또한 국내외 대학에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 활동도 펼쳤다. 국내에서는 2014년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0만달러를 쾌척했고, 이후 꾸준히 화학과 및 생명과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7년 모교인 UCLA에 200만 달러를 기부해 2개의 석좌교수직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LA 동부 라시에라 대학에 화학 연구동 신축을 위해 100만 달러를 내놨다.

그밖에도 그는 전 세계 한인들이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익 법인 '글로벌한상드림'의 이사장을 맡아 10만달러를 출납수범 기부해 장학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고, 탈북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다.

2. 독립운동 역사 보존 및 정신 계승

홍명기는 LA 이주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내 헬렌 안의 집에서 열린 흥사단 모임에 참석하며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 도산 선생은 초기 미주 한인들에게 "미국사회에 살아가려면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주류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서로 믿을 수 있다"며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이러한 도산의 가르침을 공유해 민족정신 함양과 역사적 자긍심 고양에 힘썼다.

① 도산 안창호 기념 동상 건립 (2001년)

1999년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총회장을 맡게 된 그는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미주 한인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동상 건립을 추진했다. 리버사이드는 1904년 도산 선생이 오렌지 농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일하며 독립 의지와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해외독립운동의 뿌리가 되는 곳이었다. 자신의 기부금 15만 달러와 재미동포 기부금, 우리 정부 지원금 등 약 60만 달러를 모아 2001년 8월 리버사이드 시청 앞 공원(40평 부지)에 -마틴 루터 킹 목사 동상 맞은 편- 안창호 선생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한인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하는 정체성과 뿌리 교육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②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IC)' 지정 (2002년)

홍명기는 안창호 선생의 주 활동지였던 리버사이드로 연결되는 LA 10번·110번 고속도로 IC를 '도산 안창호 IC'로 명명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협의와 주의회 결의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로 꼽히는 동 IC 4곳에 그가 후원한 도로 표지판이 설치됐고, 이로써 한인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③ 대한민민국회관 복원

(2003년)

1909년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대한민민국회관'이 2003년 노후화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복원사업회장을 맡아 보존 운동을 주도했다. 대한민민국회관은 1909년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활용됐던 역사적인 건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우선 사재를 털어 모범을 보이고, 동포사회와 한국 정부의 후원을 이끌어내 총 70만 달러의 복원 기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민국회관은 미주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이자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3. 미주 한인사회 영향력 확대 지원

미주 한인 이민 역사, 한인사회 발전 방안 등에 관한 학술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홍명기는 2018년 미국 내 최초로 한국인 이름이 붙여진 대학 산하 연구소인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 37만 달러를 내놨다. 이 연구소는 우리 정부와 대학 측이 각각 300만 달러, 미주동포사회 기부금 300만 달러를 모금해 2010년 문을 열었다. 구술역사 기록, 도서 출판, 논문과 신문 기고 등의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 이민사 기록·보존 및 미주 한인의 역할 연구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그는 미 의회에 한인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 재미동포사회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차세대 지도자 육성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펼쳐 미국 내 다수의 한인 정치인 배출에 기여했다.

세계한상대회(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창립 멤버이기도 했던 홍 이사장은 2013년 제12차 대회의 대회장과 리딩 CEO 의장 등을 맡아 세계 한상 네트워크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으며, 타계 직전인 2021년 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용지 대금으로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까지도 모국과 동포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어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그에게 2002년 국민훈장 동백장 및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22년 그의 생일인 6월 20일을 '홍명기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옥 (1919~2005)

○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로 태어난 김영옥은 22살이 되던 1941년 미 육군 장교 소위로 임관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고, 전쟁이 끝난 후 1946년 제대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해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으로 와 대대장으로서 유엔군 3차 반격의 견인자 역할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 직접 고아원을 세워 전쟁고아들을 지원했다.

○ 휴전 후에도 한국군 군사 고문 활동과 한국군 전시 동원 계획에 대한 개편 작업을 이끌며 국군 최초 미사일 부대 창설 등의 업적을 이뤘다. 김영옥은 1972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한인 건강정보센터, 한미연합회 등을 세우는 데 공헌하는 등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힘썼다. 이러한 김영옥의 업적을 기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회는 2009년 그의 이름을 딴 공립학교 '김영옥 중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최고무공훈장을 받았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정치를 걱정하는 세상입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는 시절에는 누가 왕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 정치로 몸서리를 치며 앓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릇된 정치 속에서 백성 노릇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정치(政治)의 정은 한자로 보면 바른 정(正)과 닮아있습니다. 공자께 정치를 물었을 때, 정치는 정(正)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정치는 바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정치가, 정치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사람이야 정치가 가능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를 우리말로로는 다스린다고 합니다. '정'도 '치'도 모두 다스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즘의 학문적 개념으로는 정치에 행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행정(行政)의 정도 정치의 정과 같습니다. 어쩌면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당(政黨)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정치의 목적이 됩니다. 바른 행정을 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이라는 말도 바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목표가 없으면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말에서 정치를 왜 다스린다고 할까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스린다고 하면 웬지 지배하고 통치하고 제압하는 어감이 있습니다. 난세를 다스린다고 하고, 죄를 다스린다고 하니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치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라면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다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고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에는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의 의미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쓰린 속을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독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표현도 씁니다. 분노나 화가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쁘게 지내기도 할 겁니다.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정치를 왜 다스린다고 했을까요? 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을까요? 왜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을까요? 이제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는 집단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백성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겁니다.

정치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합니다. 행정이 백성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차별과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잠든 정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그려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осолапые с любопытством осматривались по сторонам, а затем отправились вглубь лесного массива. «Обалдеть! Проснулись хозяйева леса. Вот они бегают», — сказал автор видео.

Важно помнить: лучший способ предотвратить конфликт с хищником — это постараться избежать с ним встречи.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следу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звонить в единую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ую службу (ЕДДС) по номеру: 112 или в лесничество района.

'도로 순찰대', 곤경에 빠진 사할린 여성을 도와

지난 주말, 도로 순찰 서비스가 유즈노사할린스크-홉스크 구간 고속도로에서 문제를 겪은 여성 운전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할린 도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타이어 펑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할린 여성은 친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절망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날씨가 좋아 모두 야외에 나가 있었죠. 제 타이어는 펑크 났고요."라며 이 여성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말했다.

다행히 이 구간에서 근무 중이던 도로 순찰대 경찰관 안드레이 바쿰킨이 제때 구조에 나섰다. 안드레이는 재빨리 펑크 난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고 차가 주행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타이어 수리점까지 사할린 여인을 직접 태워다 주어 그녀가 더 이상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 주었다.

«Дорожный патруль» не оставил сахалинку в беде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служба «Дорожный патруль»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ю незаменимость на сахалин-

ских дорогах, оперативно оказав помощь женщине-водителю, столкнувшейся с неприятностью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Сахалинка, попавшая в непростую ситуацию из-за сплывшего колеса, оказалась в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не смогла связаться с близкими и уже начала отчаиваться. «Всех обзвонила, ни до кого дозвониться не смогла. Все на природе, погода хорошая, а я с пробитым колесом»,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своей бедой.

К счастью, на помощь вовремя пришел сотрудник «Дорожного патруля» Андрей Бакункин, несущий дежурство на данном участке дороги. Андрей быстро подкачал сплывшееся колесо и не только вернул автомобиль на ход, но и лично довез сахалинку до ближайшей шиномонтажной мастерской, избавив ее от дальнейших хлопот.

조사 결과: 러시아인 49% 상업분야와 연관

'아위토 라보파'서비스는 러시아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업 업계에서 일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유연한 근무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41%)와 시간제 근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35%)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응답자들은 계획 달성 및 판매량에 따른 보너스를 통해 수입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32%)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소매업 기술 전국 챔피언십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매업에서 일하는 것은 경험과 특별한 교육 없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27%)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성장 가능성(25%), 영역의 안정성(25%), 적절한 수준의 보수(25%)로 인해 응답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거의 절반(49%)이 어떤 식으로든 무역 분야와 관련이 있었다. 16%는 현재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23%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며 10%는 이 업계에서 경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거나 그만 두었다.

'아위토 라보파'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대중 전문 분야의 대표자의 41%, 상위 관리자의 3분의 1(33%), 부사장의 28%, 자격을 갖춘 사무 전문가의 22%가 여전히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한다.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49% россиян связаны со сферой торговли

Авито Работа провела опрос среди 10 000 россиян, чтобы выяснить,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они видят в работе в торговле. Опрос показал,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респонденты ценя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рать гибкий график работы (41%) и получ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оход благодаря подработкам (35%). Среди плюсов опрошенные также наз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лиять на размер дохода за счет премий за 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и объемы продаж (32%).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едено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чемпионату розничных профессий Retail Skills,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Москве с 18 по 19 апреля 2025 года.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опроса, работа в ритейле привлекает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стью начать карьеру без опыта и специ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27%), но 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25%), стабильностью сферы (25%), а также достойным уровнем оплаты труда (25%).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очти половина (49%) россиян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ы со сферой торговли: 16% работают в ней сейчас, 23% имели такой опыт в прошлом, а 10%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и или завершили карьеру в этой отрасли.

Интересно, что среди опрошенных до сих пор работают в торговле 41%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ссов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треть (33%) топ-менеджеров и 28%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тделов, а также 22%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офис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тмечают в Авито Работ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